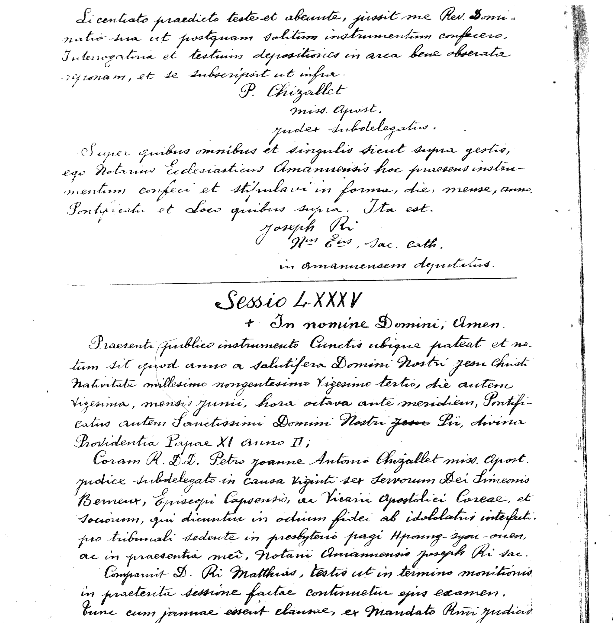
2019년 고전 문헌학 연계 전공 (CORE) 해외 현장 학습.

(작성자: 안재원)

오는 날과 가는 말을 빼면 정확하게 아흐레 동안 이탈리아 학술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학술 여답사는 서양고전문헌학과 서양중세문헌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도서관들과 문서보관소 및 대학의 학과 등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한편으로 그리스어와 라틴어 트랙의 학생들에게는 서양고전문헌학에 대한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한문트랙의 학생들에게는 서양고전문헌학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동양고전문헌학을 연구할 때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서 시칠리아에서는 세게스타(Segesta) 고고학 유적지, 로마에서는 바티칸 비밀 문서 보관소와 예수회 고문서고를 방문하였다. 시에나에서는 디지털 문헌학과 디지털 인문학의 실제와 현황에 대한 강연과 "Global Latin"의 학술대회를 직접 참여하고 참관하였다.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지만, 학술 여행은 성공적이고 모범적이었다고 자부한다. 다음의 근거 자료들과 성과들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번 학술 답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학술 발굴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기록으로만 전해졌던 필사본 5280, 5281, 5282를 찾아내고 이 필사본들이 1860년에 벌어졌던 병인박해에 대한 원천 기록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방문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문헌에 대한 서지 정보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없었으나, 바티칸 비밀문서보관소에서 학생들과 함께 확인한 것은 이 필사본들의 경우 한국어를 거치지 않고 라틴어로 직접 기록한 문서라는 점이었다. 필사본들의 복사본을 마이크로필름이나 디지털 자료로 받아보아야 하겠지만, 이 필사본들이 지닌 역사적인 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 1860년부터 1900년 초에 이르는 기간에 조선 전역에서 벌어진 천주교 박해의 과정과 실상을 전하는 증언록이고, 이 필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증언들은 또한 엄격한 천주교의 공인 문서 양식에 의거해서 검증된 사실들이라는 점에서 필사본들은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한말 한국의 역사를 밝히는 데에도 귀중한 사료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필사본들이 사료로서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에 대한 알림 내지 한국의 사정이 중국과 일본을 거치지 않고 서양에 직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왕실의 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는 점이다. 박해 시기에 순교한 성인들과 이들에 대한 증언을 한 증인들이 새우젓장사, 옹기장이, 갓쟁이, 바느질꾼, 집신쟁이 등과 같은 서민 민초들이기 때문이다. 양반들의 기록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 민초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성인들에 대한 삶과 생활방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구한말 조선의 생활 세계를 온전하게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진을 겻들이면 좋겠지만, 바티칸 비밀 문서 보관소가 사진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서, 사진을 제공할 수 없음이 못내 아쉽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해 박해 때에 순교한 성인들의 증언을 전하는 문헌에 대한 사진으로 대신하겠다.



Licentiato praedicto teste et abeunte, jussit me Rev. Dominatio sua ut postquam solitum instrumentum confecero, Interrogatoria et testium depositiones in arca bene obserata reponam, et se subscripsit ut infra.

P. Chizallet
miss. Apost.
judex subdelegatus.

Super quibus omnibus et singulis sicut supra gestis, ego Notarius Ecclesiasticus Amanuensis hoc praesens instrumentum confeci et stipulavi in forma, die, mense, anno, Pontificatu et Loco quibus supra. Ita est.

Joseph Ri
Nus Ecus, Sac. cath.
in amanuensem deputatus.

Sessio LXXXV

+ In nomine Domini, Amen.

Praesenti publico instrumento Cunctis ubique pateat et notum sit quod anno a salutifera Domini Nostri Jesu Christi Nativitate millesimo nongentesimo vigesimo tertio, die autem vigesima, mensis junii, hora octava ante meridiem, Pontificatus autem Sanctissimi Domini Nostri ~~Jesu~~ Pii, divina Providentia Papae XI anno II;

Coram R. D. D. Petro Joanne Antonio Chizallet miss. Apost. judice subdelegato in causa viginti sex Servorum Dei Simeonis Berneux, Episcopi Capsensis, ac Vicarii Apostolici Coreae, et sociorum, qui dicuntur in odium fidei ab idololatris interfecti. pro tribunali sedente in presbyterio pagi Hpoung-syou-ouen, ac in praesentia meî, Notarii Amanuensis Joseph Ri sac.

Comparuit D. Ri Matthias, testis ut in termino monitionis in praeterita sessione factae continuetur ejus exa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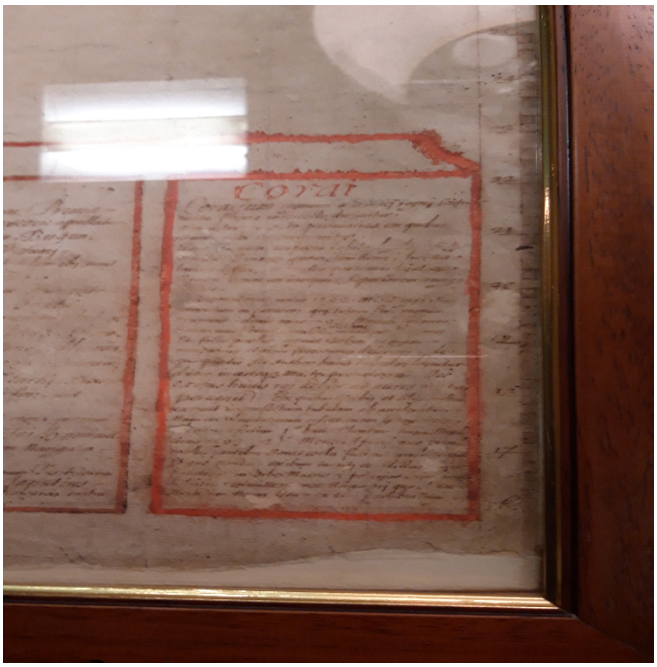
Tunc cum januae essent clausae, ex Mandato Rmi judicis

(Congr. Riti. Cod. 5279. p.603)

학술 답사 기간 중에 학생들과 함께 찾아낸 흥미로운 자료는 마테오 리치가 중국 여행을 다니면서 참조하기 위해서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는 동아시아 지도였다. 다음과 같다.

지도 안에 조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장 지도를 누가 언제 그렸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는데, 지도는 흥미롭게도 다음의 기록을 전하고 있다.



기록은 많이 지워져 흐릿하지만, 지도는 조선을 Corai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Corea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보다 엄밀한 판독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지도에는 1592년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지도가 아마도 임진왜란 당시 혹은 바로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지도는 조선 혹은 한국을 서양에 알리는 어쩌면 최초의 적어도 아주 이른 시기에 속하는 역사 사료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도는 지방 역사를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기록을 전하는데 이를 테면 다음과 같다.

사진 속의 Cienju는 전주를 가리킨다. 전주가 어쩌면 서양에 보고된 최초의 사례일 것이다. 이 지도에 대한 보다 엄밀한 문헌학적인 판독 작업이 요청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도를 학생들과 함께 예수회 문서고에서 찾아내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이번 학술 답사의 소중한 소득 가운데에 하나는 디지털 문헌학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준 강연이었다. 강연은 디지털 문헌학의 대가인 Siena 대학의 Francesco Stella 교수가 해 주었다.

강연을 통해서 Stella 교수는 디지털 비판 정본학 일반을 소개했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것으로 학생들을 디지털 인문학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단적으로, 빅 데이터 혹은 인공 지능 혹은 제4차 산업 혁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디지털 정본이었다. 디지털 정본은 종이 책에서는 구현될 수 새로운 텍스트였는데, 예를 들면 중세의 성가가 그리스 버전, 헝가리 버전, 독일 버전, 이탈리아 버전, 영국 버전으로 구현되는 멀티 텍스트였다. 이는 종이 기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필사본에서는 불가능한 했던 실연을 담은 노래가 필사본과 함께 정본으로 만들어져 학생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소중한 강연이었다. 학술 답사를 통해서 크고 작은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지면 관계 상 하나만 소개하고 글을 마치겠다.

(Salvus ut Sol. Solus ut Sal.)

어느 커피숍 문에 걸린 문구이다. "태양처럼 강건하고, 소금처럼 홀로서야"라는 뜻이다. 학생들과 학술 답사 내내 아침 인사로 주고 받은 인사말이었다.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태양처럼 규칙적이어야 하고 소금처럼 혼자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신이 부패해서는안되기 때문이다.

[참고 사항] 학술 답사 프로그램.

1. **일시: 2019년 1월 25일(출국) ~ 2월 4일(귀국)**
2. **인원: 220명**
3. **방문지역: 이탈리아(시칠리아, 로마, 시에나, 피렌체)**
4. **목적:**
5. **일정 및 방문 장소**

   2019년 1월 25일 한국 출발

   2019년 1월 25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팔레르모 도착

   2019년 1월 26일 ~ 27일 시칠리아 고문서 보관소 방문 및 고고학 유적지 현장 학습

2019년 27일 로마 도착

2019년 28일 ~ 29일 바티칸 비밀 문서 보관소 현장 학습/ 로마 예수회 대학 도서관 방문

2019년 30일 시에나 도착

2019년 1월 31일 ~ 2월 1일 중세 수도원 문서 보관소 방문/ 시에나 대학 중세 문헌학과 방문

2019년 2월 2일 피렌체 도착

2019년 2월 2일~2월 3일 우피치 미술관과 피티 궁전 방문

2월 3일 오후 출발/ 2월 4일 한국 도착.

6. 기타.